

The Influence of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 Job Crafting and Work Environment on Happiness of Nurses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및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Jun Min Park¹, Jina Oh²

박준민¹, 오진아²

¹ Student, College of Nursing, Inje University, Korea, jms10145@naver.com

²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 Research, Inje University, Korea, ohjina@inje.ac.kr

Corresponding author: Jina Oh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evidence on the happiness of nurses and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of nurses by describing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s, job crafting,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35 nurses who were working at two hospitals between 11th July and 1st August, 2022. Tool used in this study were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s, Korean Version of Job Crafting Questionnaire (JCQ-K), Korean version of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K-PES-NWI),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6.0 and Jamovi 2.2.5. The results showed that happiness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with body image, job crafting, nursing working environment, and negative correlated with body management behaviors. Moreover,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nurses were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s, job crafting,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47.2%. To increase happiness in nurses, it is needed to support various programs that can increase positive body image, job crafting, nursing work environ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research on nurses' happiness.

Keywords: Nurse, Body Image, Body Management, Job Crafting, Work Environment, Happiness

요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행복 정도를 파악하고,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및 간호근무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B광역시 소재의 1개 상급종합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135명을 편의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행복은 신체상,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체형관리행동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으로 파악되었고, 총 설명력은 47.2%이었다. 간호사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체형관리행동을 포함하여 자기주도적인 직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근무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eived: August 29, 2023; 1st Review Result: October 02, 2023; Accepted: November 25, 2023

핵심어: 간호사,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행복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happiness)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이자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상태이다[1]. 그래서, 행복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인지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2]. 특히 의료기관의 주요 인적자원인 간호사가 경험하는 행복은 간호사에게 질 높은 간호 수행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간호대상자인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3]. 즉, 간호사가 행복하지 못하면 간호사라는 직업에 동기와 흥미가 사라지게 되어 환자 간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4]. 그러므로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한국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신체상과 외모관리 등 개인적인 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5]. 신체상(body image)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은 느낌이나 태도인데,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탓에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기 위한 외모관리가 중요하게 언급된다[6]. 외모관리 중에서도 체형관리행동(body management behavior)은 최근 남녀 모두에게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7] 이는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체형관리 후 바디프로필을 촬영하여 달력을 제작한 바 있다[8].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간호사의 적극적인 체형관리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정도를 증명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 신체상과 체형관리행동이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서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요인이 강조되는 반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은 집단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9]. 그러므로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과 함께 직무설계와 근무환경과 같은 직업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San은 간호사의 행복의 개념분석 연구에서 간호사의 행복 요인을 개인적 요인, 업무특성, 그리고 업무환경 세가지로 분류하였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n의 간호사의 행복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인구학적 특성, 신체상, 체형관리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과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을 포함하는 직업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간호사의 행복을 설명하고자 하였다[2].

직원에게 업무를 한정하지 않고 직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업무환경을 예측하게 하고 변화를 주도하면서 업무를 더 의미 있게 하는 과정을 자기주도적 직무설계(job crafting)라고 한다[10]. ‘잡크래프팅’이라고 번역되는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자신이 자신의 직무의 주인이 되는 개념으로 직장에서 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11],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Wrzesniewski와 Dutton은 자기주도적 직무설계가 개인과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고[10], Chang 등도 간호사에게서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11]. 이는 비교적 최근에 더욱 강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직업적인 요인으로 간호근무환경(nursing work environment)을 생각할 수 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업무, 소통, 협력, 관계 등을 포함하는데[12], 부정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해 행복감이 낮아지면 직무에 회의를 느끼거나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근무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13].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반면, 간호사의 처우나 간호근무환경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14]. 이처럼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행복을 위협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적인 요인을 함께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신체상과 체형관리행동을,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직무설계와 간호근무환경 등의 직업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정도를 파악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상급종합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이며, 남녀 비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version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중간크기효과 0.15, 검정력 0.80, 예측변수 9개(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성별, 임상경력, 월 급여수준, 결혼상태, 최종학력)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가 114명인 것을 확인하였다[15]. 이에 탈락률 20%을 고려하여 남성 61명, 여성 81명으로 총 142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하고 총 135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2022년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연구자가 대상 기관의 간호(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의 수간호사에게 설명하고 자료수집 동의를 득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밀봉이 가능한 황색봉투에 설문지를 넣은 후 배부하였으며, 일주일 후 연구자가 각 병동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며,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신체상

본 연구에서는 David[16]가 대학생 대상자로 개발한 신체상 척도를 조정환과 송금주[17]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23문항이나 확인적 요인분석 후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설명력이 낮은 5문항을 제거하고 1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몸치장에 대한 관심(6문항), 사회적 종속성(3문항), 건강체력(2문항), 신장에 대한 불만(2문항), 전반적 외모(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조정환과 송금주[17] 연구에서 .75,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4.2 체형관리행동

본 연구에서는 서승희 등[18]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체형관리행동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24문항이나 탐색적 요인분석 후 판별타당도와 집중타당도를 저해하는 4문항을 제거하고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서승희 등[18]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4.3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본 연구에서는 Slemp와 Vella-brodrick[19]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Job Crafting Questionnaire (JCQ) 도구를 임명기 등[20]이 번역한 한국어판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척도(JCQ-K)를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원 도구 15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과업 가공, 인지 가공, 관계 가공으로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직무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hronbach's α 는 Slemp와 Vella-brodrick의 원도구에서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4.4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Lake[21]가 개발한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PES-NWI)를 조은희 등[22]이 번역한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K-PES-NWI)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29문항이나 확인적 요인분석 후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2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27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간호사의 병원정책 참여(9문항),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4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7문항),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과 지지(4문항),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hronbach's α 는 조은희 등[22]의 연구에서 .93,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5 행복

대상자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부정적 느낌을 측정하는 도구로 Hills와 Argyle[2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QHQ)를 최요원과 이수정[24]이 한국어로 번역한 행복 척도(K-QHQ)를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29문항이나 확인적 요인분석 후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2문항을 제거하고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수의 점수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 부터 ‘매우 동의함’ 까지의 6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hronbach's α 는 최요원과 이수정[24]의 연구에서 .91,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각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 t-검정,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각 변수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대상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선택(stepwise)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2.6 연구윤리

본 연구는 I 대학교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INJE2022-03-011-003). 설문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고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명시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를 개인 금고에 보관 및 관리하며, 전산화된 파일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된 폴더로 보관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3년 후 폐기할 예정이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감사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57.0%, 남성이 43.0%이었고 평균 연령은 27.98세이었다. 평균 임상경력은 50.81개월, 평균 월급여는 273.85만원이었으며, 대상자의 85.4%는 미혼이었으며, 73.7%가 학사학위소지자이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35)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Gender	Male	58(43.0)	
	Female	77(57.0)	
Age (year)	≤26	45(33.3)	27.98±3.05
	27~28	49(36.3)	
	≥29	41(30.4)	
Clinical career (month)	≤30	45(33.0)	50.81±31.22
	31~60	44(32.6)	
	>60	46(34.1)	
Experience of turnover	Yes	116(85.9)	
	No	19(14.1)	
Monthly salary (10,000 KRW)	≤280	67(49.6)	273.85±52.09
	>280	68(50.4)	
Marital status	Unmarried	114(84.4)	
	Married	21(15.6)	
Education level	Diploma	28(20.7)	
	Bachelor	99(73.3)	
	≥Master	8(6.0)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KRW, Korea Won

3.2 대상자의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정도

각 변수의 평균평점은 신체상 3.12±0.3, 체형관리행동 1.55±0.40,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4.00±0.7, 간호근무환경 2.53±0.34, 행복 4.07±0.63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정도(N=135)

[Table 2] Degrees of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 Job Crafting,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Happiness (N=135)

Variables	Subcategory	Range	Min	Max	M±SD
Body Image	Total	1~5	2.06	4.06	3.12±0.38
	Attention to Grooming	1~5	2.20	4.20	3.35±0.46
	Social Dependence	1~5	1.00	4.00	2.58±0.87
	Health/Fitness Evaluation	1~5	1.50	4.75	3.19±0.68
	Height Dissatisfaction	1~5	1.00	5.00	2.73±1.06
	Overall Appearance Evaluation	1~5	1.60	4.60	3.20±0.60
Body Management Behavior		1~5	1.00	2.65	1.55±0.40
Job Crafting	Total	1~6	2.40	5.73	4.00±0.76
	Task Crafting	1~6	1.60	6.00	3.95±0.96
	Cognitive Crafting	1~6	1.40	6.00	4.10±1.01
	Relational Crafting	1~6	1.60	6.00	3.95±0.90
Nursing Work Environment	Total	1~4	1.74	3.33	2.53±0.34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1~4	1.7	3.22	2.49±0.37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1~4	1.57	3.86	2.65±0.38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1~4	1.75	3.75	2.68±0.40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1~4	1.25	3.25	2.23±0.51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1~4	1.33	4.00	2.59±0.43
	Happiness	1~6	2.44	5.63	4.07±0.63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체상과 체형관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성별($t=2.30, p=.023$)과 임상경력($F=8.18,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주도적 직무설계가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임상경력 30개월 이하가 임상경력 3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보다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F=5.53, p=.005$)과 임상경력($F=14.29, p<.001$)에 따라 간호근무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26세 이하가 27~28세와 29세 이상보다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임상경력 30개월 이하가 임상경력 3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와 61개월 이상보다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령($F=3.76, p=.026$)에서 26세 이하의 행복 정도가 27~28세보다 높았고, 임상경력($F=4.83, p=.009$)에서 임상경력 30개월 이하가 임상경력 31개월 이상 60개월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행복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4.10, p=.019$), 사후분석(Scheffé) 결과 석사학위 이상인 대상자의 행복이 전문학사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차이(N=135)

[Table 3] Differences of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 Job Crafting,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Happine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5)

Variable	category	n(%)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		Job Crafting		Nursing Work Environment		Happin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58(43.0)	3.17±0.35	1.20 (.234)	1.50±0.38	-1.31 (.193)	4.17±0.70	2.30 (.023)	2.58±0.33	1.41 (.161)	4.10±0.61	0.54 (.593)
	Female	77(57.0)	3.09±0.40		1.59±0.41		3.87±0.78		2.49±0.35		4.05±0.64	
Age (yr)	≤26	45(53.3)	3.20±0.35	1.39 (.252)	1.56±0.40	0.82 (.441)	4.11±0.68	1.30 (.275)	2.66±0.33	5.53 (.005)	4.26±0.55a	3.76 (.026)
	27~28	49(36.3)	3.08±0.41		1.59±0.42		3.87±0.81		2.48±0.34		3.92±0.64b	
	≥29	41(30.4)	3.09±0.37		1.48±0.38		4.04±0.77		2.44±0.33		4.03±0.65c	
Clinical career (month)	≤30	45(33.3)	3.19±0.33	1.16 (.318)	1.53±0.45	0.96 (.385)	4.32±0.53	8.18 (<.001)	2.73±0.25	14.29 (<.001)	4.29±0.57a	4.83 (.009)
	31~60	44(32.6)	3.11±0.41		1.61±0.34		3.71±0.76		2.43±0.32		3.91±0.62b	
	>60	46(34.1)	3.07±0.40		1.50±0.40		3.97±0.83		2.42±0.37		4.01±0.64c	
Experience of turnover	Yes	116(85.9)	3.09±0.37	-0.39 (.694)	1.57±0.41	0.28 (.783)	3.93±0.78	-0.42 (.675)	2.51±0.36	-0.28 (.782)	3.87±0.61	-1.45 (.150)
	No	19(14.1)	3.13±0.38		1.54±0.40		4.01±0.75		2.53±0.34		4.10±0.62	
Monthly salary (10,000 KRW)	≤280	67(49.6)	3.10±0.39	-0.57 (.569)	1.51±0.37	-1.15 (.251)	3.92±0.77	-1.25 (.215)	2.53±0.35	-0.07 (.943)	4.09±0.64	0.31 (.759)
	>280	68(50.4)	3.14±0.37		1.59±0.43		4.08±0.73		2.53±0.34		4.05±0.62	
Marital status	Unmarried	114(84.4)	3.12±0.37	-0.07	1.55±0.40	0.18 (.854)	4.00±0.74	-0.07 (.947)	2.53±0.35	0.33 (.743)	4.05±0.61	-0.73 (.468)

	Married	21(15.6)	3.13±0.46	(.946)	1.53±0.41		4.01±0.89		2.50±0.35		4.16±0.71	
Education level	Diploma	28(20.7)	3.02±0.34	1.40 (.251)	1.57±0.40	1.34 (.266)	3.86±0.81	2.35 (.099)	2.59±0.31	0.71 (.494)	3.86±0.59a	4.10 (.019) (c>a)*
	Bachelor	99(73.3)	3.15±0.37		1.56±0.41		4.00±0.73		2.51±0.36		4.10±0.62b	
	≥Master	8(6.0)	3.08±0.65		1.31±0.27		4.54±0.76		2.57±0.31		4.56±0.46c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 scheffé test

3.4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상관관계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신체상($r=.32, p < .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간호근무환경은 신체상($r=.24, p = .005$), 자기주도적 직무설계($r=.51, p < .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복은 신체상($r=.48, p < .001$), 자기주도적 직무설계($r=0.60, p < .001$), 간호근무환경($r=.43, p < .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체형관리행동($r=-.27, p = .002$)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표 4]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및 행복의 상관관계(N=135)

[Table 4] Correlation among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 Job Crafting, Nursing Work Environment, Happiness (N=135)

Variable	Body Image	Body Management Behavior	Job Crafting	Nursing Work Environment
	r (p)			
Body Management Behavior	-.11 (.191)			
Job Crafting	.32 (<.001)	-.18 (.040)		
Nursing Work Environment	.24 (.005)	-.04 (.608)	.51 (<.001)	
Happiness	.48 (<.001)	-.27 (.002)	.60 (<.001)	.43 (<.001)

3.5 행복의 영향요인

[표 5] 행복의 영향요인(N=13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N=135)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F (p)
	B	SE	β		
(Constant)					31.36 (<.001)
Job Crafting	0.59	0.11	0.40	5.24 (<.001)	
Body Image	0.74	0.16	0.30	4.54 (<.001)	
Body Management Behavior	-0.33	0.13	-0.16	-2.48 (.015)	
Nursing Work Environment	0.28	0.13	0.15	2.10 (.037)	

Durbin-Watson=2.283, VIF=1.04~1.47 Adj R²=.472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 외에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 임상경력, 교육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선택(stepwise)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범주형 변수인 교육수준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오차와 자기상관 검증에서 Durbin-Watson 값은 2.283,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4~1.4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직무설계($\beta=0.40, p < .001$), 신체상($\beta=0.30, p < .001$), 간호근무환경($\beta=0.15, p = .037$), 체형관리행동($\beta=-0.16, p = .015$)이었으며, 이 변수들의 간호사의 행복에 대한 설명력은 47.2%이었다[Table 5].

4. 논의

간호사의 행복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3], 간호사의 행복과 관련된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은 간호의 질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적인 요인을 파악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각 변수의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5점 만점에 3.12점으로 중간 정도의 신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신체상을 조사한 Kim 등[25]의 연구에서 2.70점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26]. Kim 등[25]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의 남녀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편의추출을 통해 남자 간호사를 적극 모집하였고, 연구에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43.0%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신체상을 갖는데,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이 여성이 더 엄격하고 자주 적용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문화적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쉽게 내면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체형관리행동은 5점 만점에 평균 1.5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Seo 등[18] 연구에서 1.69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체형관리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평균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체상을 가지고 있어 체형관리행동의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Seo 등[18]은 체형관리행동이 여대생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 것에 비해,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3교대 근무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체형관리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6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와 Kim[28]의 연구와 Kwon과 Lee[2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임상경력 30개월이하가 61개월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Kwon과 Lee[29]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5년 이상이 5년 미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는 임상경력의 구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Kwon과 Lee[29]의 연구에서는 보건행정과 공무활동을 하는 상근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차가 높아질수록 행정업무의 결정권이 늘고 자기주도적인 직무설계의 책임이 높아지는 직무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임상경력 30개월 이하에서 환자 침상옆에서 직접간호를 수행하는 업무가 많아 자기주도적인 직무설계를 높게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직무내용의 차이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직무설계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한 직무별로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5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ang 등[11]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했다. 이 도구를 개발한 Lake[21]는 점수가 2.5점 이상일 때 간호사들은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2.65~2.95점 분포인 것을 비추어볼 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9개 국가의 간호근무환경을 비교한 Aiken[30]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간호근무환경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근무환경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고,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Chang 등[11]의 연구에서도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고,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관리자의 높은 역할수행에 비해 기관의 인력과 물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중환자가 증가하면서 고된 간호활동으로 인한 간호사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인력과 자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연구대상자의 행복은 6점 만점에 4.07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67.83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Cha[31]의 연구에서는 7점 만점 중 4.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65.7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은 연령, 교육수준과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Nam과 Kwon[14]의 연구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이 전문학사보다 행복이 높다고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Kim과 Kwon[32]의 연구에서 임상경력 6년 이상이 3년 미만보다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간호사의 행복에는 직무, 간호근무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근무환경에서 조사한 연구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 시기와 지역, 근무경력,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을 분류하여 폭넓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적 직무설계가 높을수록($\beta=.40, p <.001$), 신체상($\beta=.30, p <.001$)이 높을수록, 체형관리행동이 낮을수록($\beta=-.16, p =.015$), 간호근무환경이 높을수록($\beta=.15, p =.037$) 행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7.2%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간호사의 행복에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San[2]의 연구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직무설계가 간호사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Lee[3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자기주도적 직무설계가 업무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Seo 등[3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직원이 스스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다시 설계하여, 직무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10]. 특히, Lee[34]는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어떻게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자기주도적 직무설계와 행복이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Wrzesniewski와 Dutton[10]은 직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은 직원의 심리적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 있고, 직무는 한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와 그 관계들과의 총합이므로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긍정 조직심리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직군에서 자기주도적인 직무설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 간호근무환경도 직업적 요인으로서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Ju 등[35]의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이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Han[36]은 간호근무환경은 5가지 하위영역인 간호사의 병원정책 참여,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간호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과지지,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력과 자원의 적절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국가는 간호를 위한 자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각 의료기관은 간호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간호사의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조사한 신체상도 행복에 높은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에 긍정적이고 대인관계에도 자신감이 높아져 행복을 느끼게 된다[37]. 간호대학생의 신체상과 행복을 연구한 Kim[38]은 한국의 젊은 층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행복하고, 대인관계가 좋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분석하였다[37]. Gong[37]은 외모만족도가 높아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Park[39]은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신체상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모만족도는 긍정적인 신체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이므로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근무기관 등에서의 자기긍정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체형관리행동이 낮을수록 행복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해석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음의 상관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체형관리행동을 적게 하는 것은 높은 신체상을 가지고 있어 행복지수가 높거나, 체형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낮은 신체상을 가지고 있어 행복지수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측면은 체형관리행동은 식이 조절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하고, 여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때문에 행복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처럼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함축한 체형관리행동과 행복 간의 관계를 추후 고급통계를 활용하여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간호근무환경과 행복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9]. 따라서 간호사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직원의 행복을 고민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근무환경의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상, 체형관리행동,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기주도적 직무설계, 간호근무환경이라는 직업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상, 체형관리행동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함께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B 광역시에 소재한 1개 상급종합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남녀가 인지하는 신체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편의추출을 통해 남녀간호사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었으나, 성별에 따른 신체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의 실제 비율을 반영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기관리의 하나인 신체상과 체형관리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간호사가 자기주도적으로 직무를 설계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간호근무환경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사가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필요하게 적절한 체형관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호사 행복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A. K. Bekhet, J. A. Zauszniewski, W. E. Nakhla, Happiness: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ursing Forum*, (2008), Vol.43, No.1, pp.12-23.
DOI: <https://doi.org/10.1111/j.1744-6198.2008.00091.x>
- [2] E. O. San, Concept Analysis of Nurses' Happiness, *Nursing Forum*, (2015), Vol.50, No.1, pp.55-62.
DOI: <https://doi.org/10.1111/nuf.12099>
- [3] G. M. Noh, M. S. Yoo, Effects of Workplace Spiritua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6), Vol.22, No.3, pp.251-259.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6.22.3.251>
- [4] M. H. Nam, M. R. Le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f Happiness Index of Clinical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AJMAHS)*, (2019), Vol.9, No.3, pp.399-411.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3.038>
- [5] S. H. Kwon, The Influence of Behaviors of Managing Body-Shape of Adult Women on Self-esteem and Happiness, Konkuk University, Master Thesis, (2020)
- [6] S. Y. Kim, Y. H. Choi, A Study on Skin Health Care Behavior and Adult Men's Concern Level for Appearance, *The Korean Beauty Management Society*, (2015), Vol.3, No.2, pp.145-157.
Available from: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569>
- [7] M. H. Choi, The Effect of Body mass index(BMI) on Body image, Stress, Happiness of Normal-Weight female Adolescents - Focus on Double-mediator effect of Body image and Stress, *Journal of Regional Policies*, (2017), Vol.28, No.2, pp.127-151.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366488>
- [8]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2116152851743>, Apr 22 (2022)
- [9] <http://www.edu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4>, Oct 02 (2022)
- [10] A. Wrzesniewski, J. E. Dutton,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01), Vol.26, No.2, pp.179-201.
DOI: <https://doi.org/10.5465/amr.2001.4378011>
- [11] S. Chang, K. Han, Y. Cho, Association of Happiness and Nursing Work Environments with Job Crafting among Hospital Nurs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0), Vol.17, No.11, p.4042.
DOI: <https://doi.org/10.3390/ijerph17114042>
- [12] J. W. Park, S. J. Oh, The Influence of Challenging Stress on Happ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Job Crafting,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020), Vol.20, No.2, pp.71-84.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A106894072>
- [13] K. N. Kim, The Effect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Happiness Index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4), Vol.8, No.2, pp.61-72.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2811/kshsm.2014.8.2.061>

- [14] M. H. Nam, Y. C.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2), Vol.10, No.9, pp.417-427.
UCI: G704-002010.2012.10.9.045
- [15]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 Vol.41, pp.1149-1160.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16] D. Rowe, J. Benson, T. Baumgartner, Development of the Body Self-Image Questionnaire,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1999), Vol.3, No.4, pp.223-247.
DOI: https://doi.org/10.1207/s15327841mpee0304_4
- [17] J. H. Jo, G. J. Song, The Construct-Related Validity of an Body Image Questionnaire for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2002), Vol.4, No.1, pp.31-46.
UCI: I410-ECN-0102-2009-690-002420853
- [18] S. H. Seo, B. Y. Choi, M. O. Choi, Correlation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body type management behavior by fashion leadership -centering with college female students in certain area-,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 (2010), Vol.11, No.1, pp.15-28.
UCI: G704-SER000008940.2010.11.1.011
- [19] G. Slemp, D. Vella-Brodrick, The job crafting questionnaire: A new scale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employees engage in job craf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2013), Vol.3, No.2.
- [20] M. K. Lim, Y. J. Ha, D. J. Oh, Y. W. Soh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Job Crafting Questionnaire (JCQ-K),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014), Vol.21, No.4, pp.181-206.
UCI: G704-002085.2014.21.4.010
- [21] E. T. Lake, Development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 *Research Nursing Health*, (2002), Vol.25, No.3, pp.176-188.
DOI: <https://doi.org/10.1002/nur.10032>
- [22] E. H. Cho, M. Choi, E. Y. Kim, I. Y. Yoo, N. J. Le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1), Vol.41, No.3, pp.325-332.
DOI: <https://doi.org/10.4040/jkan.2011.41.3.325>
- [23] P. Hills,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02), Vol.33, No.7, pp.1073-1082.
DOI: [http://dx.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dx.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24] Y. W. Choi, S. J. Le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9, No.4, pp.887-901.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28708>
- [25] S. S. Kim, J. S. Park, Y. S. Roh,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ceived Health Status, Body Ima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05), Vol.17, No.1, pp.88-99.
Available from: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0525458753294&oCn=JAKO200525458753294&dbt=JAKO&journal=NJOU00291058>
- [26] H. W. Jeon, S. A. Kim,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Media influence, Body image and Self-esteem: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3), Vol.27, No.4, pp.289-305.
DOI: <https://doi.org/10.18398/kjlgas.2013.27.4.289>
- [27] J. M. Kim, S. J. Yi,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and Self-esteem on Body Image,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2010), Vol.27, No.6, pp.1-12.
Available from: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911764890194.pdf>

- [28] H. H. Cho, E. Y. Kim, Effect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Health, and Job Crafting on Intent to Stay among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0), Vol.26, No.2, pp.172-180.
DOI: <http://doi.org/10.1111/jkana.2020.26.2.172>
- [29] S. H. Kwon, T. W. Lee, Effects of Job Crafting and Job Engagement on Career Management Behavior among Public Institution Nurses: Mediating Effect of Job Engag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2), Vol.28, No.3, pp.261-272.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2.28.3.261>
- [30] L. H. Aiken, D. M. Sloane, J. P. Cimiotti, S. P. Clarke, L. Flynn, J. A. Seago, J. Spetz, H. L. Smith, Implications of the California nurse staffing mandate for other states, *Health Serv Res*, (2010), Vol.45, No.4, pp.904-921.
DOI: <https://doi.org/10.1111/j.1475-6773.2010.01114.x>
- [31] K. J. Cha, Stud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Nursing Performa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7), Vol.8, No.3, pp.973-99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3.52>
- [32] S. Y. Kim, Y. E. Kwon, Effect of Happiness and Empowerment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 Vol.21, No.1, pp.112-1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12>
- [33] A. R. Seo, Y. S. Jung, Y. W. Sohn, The Influence of Job Crafting and Task Identity on Meaningful Work: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018), Vol.31, No.1, pp.149-173.
DOI: <https://doi.org/10.24230/ksiop.31.1.201802.149>
- [34] H. E. Le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Korean Job Crafting Sca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 Vol.18, No.10, pp.611-6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611fkuc>
- [35] E. J. Ju, Y. C. Kwon, M. H. Nam,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dex,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5), Vol.21, No.2, pp.212-222.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5.21.2.212>
- [36] S. J. Han, Effec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Job Craft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Nurse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22), Vol.28, No.1, pp.9-19.
DOI: <https://doi.org/10.1111/jkana.2022.28.1.9>
- [37] Y. G. Gong, The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f a Mediator, *Hany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09)
- [38] J. S. Kim, S. Kang, Influence of Life Stress, Body Image, and Happiness 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0), Vol.14, No.4, pp.421-430.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0.6.14.4.421>
- [39] H.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Yangsaeng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2), Vol.18, No.1, pp.31-39.
UCI: G704-SER000012890.2012.18.1.005